II. 현안 및 과제

1.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평가

- **(개관) 북핵 문제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한 채 성과 없이 폐막**
  - **(의미)** 이번 회담은 시기적으로 북핵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한 6자 회담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음
  - **(쟁점)** 북핵 문제가 초점으로, 평화적 해결 진전을 촉구한 남측에 대해 북측은 '북핵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'라면서 반발함에 따라 사실상 결렬
  - **(합의 내용)**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항에는 합의하지 못한 채, "6.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·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한다"는 간략한 공동보도문만을 발표
  - 이와 함께,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7차회의(2003. 11월초)와 차기 남북장관급회담(2004. 2. 3~2. 6) 일정 도출에 합의

- **(평가) 남북 및 북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이중적 접근 태도로, 남한 내부에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남북 대화 무용론이 확산될 우려**
  - **(긍정적)** 차기 회담 일정의 확정과 남북 관계 유지에 대한 양측의 의지 재확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
  - **(부정적)** 지난 10월의 핵 위기 이후 5차례의 회담에서,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문구가 공동보도문에서 누락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북측은 핵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

- **(향후 전망) 남한 내부의 정국 불안과 UN 안보리의 이라크 결의안 채택 등으로 차기 6자 회담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**
  - **(남북 관계)** 북측의 실리주의적 접근 자세로 남북 관계와 남북 경협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, 추가적인 대규모 경협 사업 추진에는 한계
  - 북측은 이라크 파병과 노대통령의 불신임 문제와 함께, 개성공단의 조기 착공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, 남북 관계와 남북경협 발전에 대한 기대 표명
  - **(북핵 문제)** 유리한 협상용 카드로 활용코자 하는 북한의 전술과 이라크 문제 우선 해결의 미국 입장과의 차이로 차기 6자 회담의 연내 개최가 불투명
  - 최근 북한은 ▲5MW 원자로의 정상 가동 및 재처리된 플루토늄의 용도 변경, ▲미국의 서면 안전 담보는 '빈 종잇장' ▲6자 회담을 포함한 모든 핵 관련 협상에서 일본 배제 등을 주장한 데 이어, 회담 중에도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'때가 되면 핵 억제력의 물리적 공개 조치'를 취할 것이라고 수위를 높여왔음